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우리나라, 국제물류성과지표(LPI) 개선 노력 지속 필요
2. 5월 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 51.2로 안정세 유지

물류정책·산업동향

1. 아시아~북미 항로, 18,000TEU급 초대형 '컨' 선 투입되나?
2. 유럽선주협회와 국제해운회의소, EU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촉구
3.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정기 크루즈선 운항 개시 예정
4. 미국, 신기술 기반 고객지향적 물류서비스 개발
5. BMW, 안성에 신규 대형 물류센터 개장

공지사항

1. 2017년도 「제3회 북극아카데미」 국내참가자 모집 공고

명사 스피치

"Operating a distribution network that delivers strategic growth, while also meeting overall financial objectives, requires robust real estate management capabilities that range from site selection and property development to lease management and facilities operation."

Kent Waggoner
/ Vice President of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DHL Real Estate
(2017. 6. 7. / DHL Press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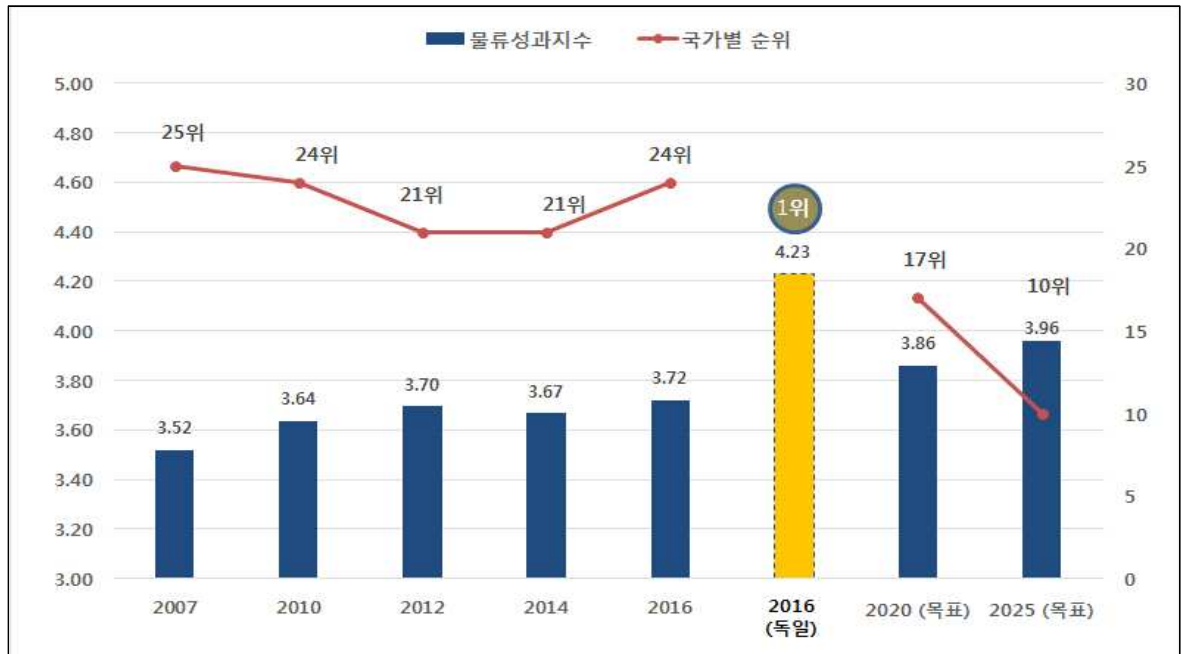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우리나라, 국제물류성과지표(LPI) 개선 노력 지속 필요

우리나라 국제무분 물류성과지표 추이 및 중장기 목표

(단위 : 점, 순위)



자료 : 세계은행(World Bank)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무분 물류성과지표(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가 2007년 3.52에서 2016년 3.72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는 25위에서 24위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임
 - 2016년 1위 국가인 독일의 LPI는 4.23으로 우리나라보다 0.51점을 앞서고 있음
 - 상위 10개국: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네덜란드, 싱가포르, 벨기에, 호주, 영국, 홍콩, 미국 등임
- 2016년에 발표된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상 우리나라 국제물류성과지표(LPI)의 중장기 목표는 2020년 3.86(17위), 2025년 3.96(10위)로 설정된 바 있음
 - 2016년 기준 10위 국가인 미국의 LPI는 3.99로 나타나는 등 상위 국가들의 LPI 역시 지속 개선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LPI 목표 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무분 LPI는 6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각 세부지표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참고자료 : World Bank(lpi.worldbank.org), 2017.6.13.

김은수 국제물류연구실장

051-797-4665, kes1213@kmi.re.kr

5월 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 51.2로 안정세 유지

중국 제조업 PMI 지수(2016년 12월 ~ 2017년 5월)

구 분	PMI
2016년 12월 16일	51.4
2017년 1월 17일	51.3
2017년 2월	51.6
2017년 3월	51.8
2017년 4월	51.2
2017년 5월	51.2

자료 : www.fbicgroup.com

- 5월 중국 제조업 PMI¹⁾는 51.2로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 이는 최근 들어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안정화 되고 있음을 가리킴
- 13개의 하부 지수 중 7개 부문은 지난달 대비 저조했고 5개 부문은 상승함
- 5월 신규주문지수²⁾는 52.3을 기록해 전 달 대비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안정세를 이어갔고, 반대로 생산량지수는 4월 53.8에서 53.4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임
- 한편,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투입가격지수가 기준 50선 이하인 49.5로 떨어졌는데, 이는 생산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5월 공장도가격지수도 50 이하를 유지함
-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PMI는 51.2로 4월의 52.0보다 하락했고, 생산지수 역시 4월 55.0에서 53.3으로 하락했지만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PMI는 각각 4월의 50.2와 50.0에서 51.3과 51.0으로 상승함
- 5월의 중국 PMI 동향을 종합하면 중국 제조업의 생산, 신규주문, 신규수출주문, 구매량은 확장, 완제품재고, 주요투입재고, 주문재고는 위축, 수입은 유지, 그리고 투입물가, 출하물가는 하락하고 공급자 배송시간은 빨라지고 사업 기대는 낙관적임

■ 참고자료 : fbicgroup.com, 2017.5.31.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1)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내고 PMI가 흔히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함.

2) 신규주문지수는 내수 및 수출 주문을 포함하며 제조업자들은 내수 주문 및 수출 구분 없이 응답함.

물류정책 · 사업동향

아시아~북미 항로, 18,000TEU급 초대형 '컨' 선 투입되나?

- 최근 아시아~북미 항로에서 13,000TEU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운항이 급증하고 있음
 - *Container Insight Weekly* 최신호(Drewry)에 따르면 아시아~북미서안 항로에 투입된 13,000TEU급 이상 '컨' 선은 해운얼라이언스 재편 전인 지난 1월 21척에서 재편 후인 5월 36척으로 증가
 - 선사 스케줄과 *BlueWater Reporting*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북미서안 항로에 투입된 '컨' 선의 최대 적재량은 14,414TEU 임
 - 특히, Ocean Alliance는 PRX/SCI 노선에 총 6척의 대형 '컨' 선(평균 적재량 14,171TEU)을 투입해 중국(푸저우, 난사, 홍콩, 옌텐, 샤먼)과 북미서안(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을 서비스하고 있음
- 지난 4월 1일, 3강 체제 해운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라 아시아~북미 항로 주간 서비스 (Weekly Service) 항차 수는 기존 38개에서 37개로 감소
 - 주간 서비스 빈도 감소 및 선박대형화는 터미널 내 시기별 물동량 쏠림(peaks)현상 심화가 원인이며 운영사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북미서안 지역에서는 새로운 해운얼라이언스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특정 항만으로의 물동량 쏠림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물동량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는 수출화물에 비해 보다 많은 장비 및 화물 처리 시간을 요구하는 수입화물 처리 중심 항만인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북미서안 항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선사들은 18,000TEU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투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힘
 - 지난 2015년 말, CMA CGM사는 18,000TEU급 *Benjamin Franklin*호를 아시아~북미 항로에서 시험 운항했으나 북미서안 지역 항만(로스앤젤레스, 롱비치)의 기반시설 부족 및 항만 노동자 문제, 내륙연계 운송망 여건 등의 문제 발생
- 그러나 현재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24,000TEU급 극초대형 '컨' 선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 로스앤젤레스항은 2018년 완공 예정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교량(Gerald Desmond Bridge) 증설 공사중
 - 롱비치항은 13억 달러를 투자해 두 개의 기존 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하고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항만재개발사업(Middle Harbor Terminal Redevelopment Project)을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 개발 사업 공사중
 - 하버트럭운송협회(Harbor Trucking Association, HTA)가 로스앤젤레스-롱비치항 14개 터미널 반출입 트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럭의 항만 내 체류시간 및 정체현상은 기반시설 확충 공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항만자동화 및 얼라이언스 재편은 순환시간을 감소시킴
- Drewry는 아시아~북미 항로의 컨테이너선박 대형화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 americanshipper.com, 2017.6.5.

유럽선주협회와 국제해운회의소, EU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촉구

- 지난 6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유럽선주협회(ESCA)와 국제해운회의소(ICS)는 국제기후협약 달성을 위한 EU와 중국의 협력 강화를 촉구함
 - EU와 중국은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9회 EU-중국 정상회담('17.5.30~6.2)에서 미국을 제외시키고 파리기후협약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또한, EU와 중국은 파리기후협약이행의 진전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9월 캐나다와 함께 주요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유럽선주협회 패트릭 버호벤(Patrick Verhoeven) 사무총장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국제해운분야의 CO₂ 감축 전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따라서 그는 IMO의 해운분야 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EU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71차 회의('17.7.3~7)에서 온실가스감축전략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임
 - MEPC 제71차 회의 개최에 앞서 글로벌 해운업계는 총 CO₂ 배출량을 2008년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부문별 연간 배출 총량을 2050년까지 IMO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음³⁾
 - ICS 피터 힌치리페(Peter Hinchliffe) 사무총장은 EU와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IMO 회원국이 동 제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함. 그는 각 정부가 대체에너지 및 비화석 연료 개발에 우선순위를 줘야 하며 IMO는 기술 및 운영 조치만으로 CO₂ 배출량을 2008년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ESCA와 ICS는 EU와 그 외 지역이 고려하고 있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음
 - EU의회는 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운송 분야 또한 포함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또한 국가 ETS 계획에 운송 분야 포함을 고려하고 있음
 - 패트릭 버호벤씨와 피터 힌치리페씨는 국가단위 계획에 대해 글로벌 산업의 탄소배출량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해운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음. 또한, 개별적 해결책은 비생산적이고,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글로벌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함

■ 참고자료 : www.ics-shipping.org, 2017.6.7.

전우현 연구원

051-797-4615, jwh0321@kmi.re.kr

3) IMO에 제출된 동 제안서는 국제해운회의소(ICS), 발트국제해사협의회(BIMCO), 국제건화물선주연합회(INTERCARGO), 국제유조선주연합회(INTERTANKO)가 공동으로 작성함.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정기 크루즈선 운항 개시 예정

- 올 10월 초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정기 크루즈선 운항이 개시될 예정임
 - 위 크루즈선 항로 개설은 블라디보스토크 여객터미널사와 강원도해양관광센터 간 논의에 의해 결정됨
 - 속초~블라디보스토크 정기 크루즈선은 10월 초부터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1회 운항에 약 900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함
- 동 구간은 한·러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많은 것으로 기대됨
 - 연해주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해 2015년 3만 명, 2016년 5만 명을 기록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의 국내 관광객 수가 작년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정기 크루즈선 이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2018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기를 기점으로 러시아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정기항로는 한국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두 번째로 연결되는 크루즈선 항로임
 - 첫 번째로 개설된 블라디보스토크~동해~사카이미나토 간 크루즈선 항로는 7년 전부터 운항을 시작했으며, 주 1회 운항에 500명 승객과 130대의 자동차 수용이 가능함

블라디보스토크 여객터미널 전경



자료 : tass.ru

출처: tass.ru, 2017.5.31.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i@kmi.re.kr





미국, 신기술 기반 고객지향적 물류서비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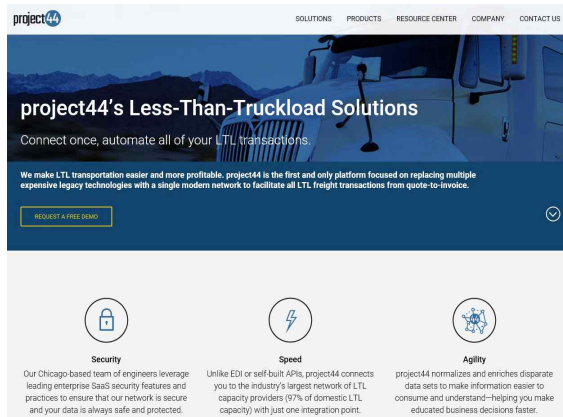
- 미국의 물류기술 개발 전문 기업인 “Project44”는 소량화물 혼재운송(Less Than Truckload; LTL)⁴⁾을 위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인 “Volume LTL”을 개발
 - 현재 LTL 운송의 경우, 트럭 내 이용할 수 있는 적재공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최신화 되지 않은 부킹(booking) 방식으로 인해 화주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화물 적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⁵⁾
- 이 새로운 시스템은 화주, 3PL 운송업자를 연결하여 쌍방이 LTL 운송에 대한 견적 수·발신뿐 만 아니라 운송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
 - LTL 운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적재 및 이동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화물 추적이 용이하도록 함
 - 기존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부킹 및 정보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화주와 운송업자에게 신속하고 가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됨
- 해당 시스템을 통해 LTL 화물의 트럭 적재율을 높여 트럭 공간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되고 있는 운송비 절감이 가능
 - 이는 단순히 단위당 화물운임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광범위한 복합운송 공급망 전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미국의 운송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X North America”는 국경을 통과하는 트럭에 대해 화물 추적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
 - 현재 미국에서는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과 시 세관 및 검문소에서 전화와 메시지 전송을 금지 규정으로 인해 화물 추적이 중단되는 등 일정 시간동안 공급망 내 정보흐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170만대의 트럭에 해당됨
- 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트럭운전자들이 활용함으로써 국경통과 중이라도 화물의 위치와 현재 수행 중인 화물 작업 정보를 화주에게 제공 가능
 - 트럭에 최초 화물이 적재된 후, 트럭 운전자의 적재 확인과 승인과정을 거쳐 화물에 대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짐으로써 화주, 포워더 및 운송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특히, 국경 통과 전후 트럭운전자가 “Arrival at border” 및 “Departed boarder”라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자동으로 국경통과 여부 및 화물 위치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됨
- 이를 통해 공급망 내 존재하는 모든 연결(link) 부분에서의 화물에 대한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가시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LTL은 소량화물을 수송하는 육상(도로)운송의 한 형태로, 세미 트레일러 1대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크기의 화물을 의미함. 트럭 1대를 빌리는 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화물 출하가 가능하며, LTL 서비스 제공업자는 크로스도킹(cross-docking), 포장 및 재고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반면, 화물파손 가능성이 FTL(Full Truck Load)에 비해 크고 긴급화물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5) 여기서 의미하는 비효율은 화주가 원하는 때에 화물 출하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LTL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FTL 운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이며, LTL 운송업자에게는 서비스 주기마다 화물 미확보로 인한 공차율 증가가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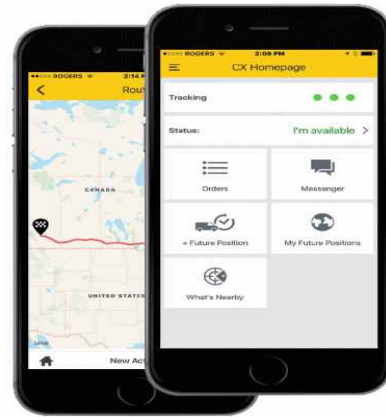


Project44사의 Volume LTL 소개 화면



자료 : www.p-44.com

CX North America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료 : cxna.com

참고자료 : www.joc.com, 2017.6.8.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BMW, 안성에 신규 대형 물류센터 개장

- BMW가 한국에 지역유통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er, RDC)를 완공해 운영에 들어감
 - 해당 물류센터는 독일 뮌헨에 있는 본부 시설을 제외한 물류관련 BMW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큼
 - BMW는 물류센터 건설에 1천 3백억 원(1억 2천만 달러)을 투자했음
 - 물류센터의 건설은 한국의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이 담당함
 - 물류센터는 서울 남서쪽에 위치한 안성에 5만 7천 m²의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기존 한국에서 운영 중이던 RDC의 3배 규모임
 - 신설 물류센터에서 평균적으로 7만 5천여 개의 부품을 처리하게 됨
 - 물류센터는 한국에서 83개 딜러 및 서비스 센터(BMW 50개, Mini 19개, Motorrad 14개)를 대상으로 애프터 마켓 부품을 유통시킬 계획임
- BMW는 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물류기업인 Geodis가 담당한다고 밝힘
 - BMW 네트워크에 대한 부품 유통은 한국 운송 업체인 신화 물류 서비스가 담당함
 - 물류센터는 인천 국제공항 및 평택항과 한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음
 - 그리고 4개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됨(중부, 평택-제천, 서해안, 영동 고속도로)
 - 철도 노선과도 연결되며, 이 노선은 2019년 운영될 예정인 유라시아 철도와도 연결됨
 - 물류센터는 주요 창고 및 위험 제품과 팔레트를 보관하는 저장 시설을 포함하여 6개의 건물로 구성됨
 - BMW는 다음 단계 확장을 위한 3 헥타르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함

BMW의 안성 물류센터 전경



자료 : automotivelogistics.media.

- 물류센터 개장 기념식에서 BMW 부품 유통 책임자는 BMW의 물류센터 현황을 설명함
 - BMW는 고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40개의 대규모 유통센터를 건립, 40만 개가 넘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 신규 개장한 RDC를 통해 연간 2백만 개의 부품을 딜러사와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 BMW는 작년 한국에서 489,459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차의 21.5%에 해당하여 수입차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음

■ 참고자료 : automotivelogistics.media, 2017.6.5.

박창근 전문연구원

051-797-4781, beinji2@kmi.re.kr



공지사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05호

2017년도 「제3회 북극아카데미」

국내참가자 모집 공고

2017년도 「제3회 북극아카데미(북극대학(UArctic) 소속 주요대학 학생 20명과 함께하는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국내참가자를 모집·선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0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2017년도 「제3회 북극아카데미」 프로그램 개요

□ 목 적

- 북극을 주제로 북극대학(UArctic) 소속 주요대학 학생 20명과 국내 대학(원)생 10명이 참가하는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이슈인 북극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의 북극역량을 소개

* 북극대학(UArctic): 180여개 대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북극권 최대의 학술교류네트워크

- 10일간의 집중적인 합숙프로그램을 통해 북극권과 우리나라의 미래세대 간 인적 유대를 공고히 하여 향후 확장된 형태의 파트너십 구축의 기반 조성

□ 사업 수행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프로그램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 시점 기준으로 휴학 및 졸업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지원 가능

□ 주요내용 : 국내외 북극 관련 석학초청특강, 국내 주요 관련 기관 현장 방문 등



2 2017년도 「제3회 북극아카데미」 국내참가자 모집계획

□ 모집인원 : 10명 예정

※ 해외 학생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같은 북극권 8개국의 원주민 학생을 중심으로 20명 수준 예정

□ 프로그램 내용

- 기간 : 10일(7.6~7.15)
- 장소 : 부산 소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국내 관련기관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극지연구소
- 세부일정(안)

일시	주요내용	비고
7.5(수)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	
7.6(목)	개회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회의장
	기조연설	북극이사회 국장
	북극정책 강의 1~3회	핀란드의 북극정책
		미국의 북극정책
		노르웨이의 북극정책
7.7(금)	환영 만찬	
	북극정책 강의 4~8회	러시아의 북극정책
		한국의 북극정책
		북극거버넌스
		북극의 사람들
7.8(토)	문화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7.9(일)	휴식	개인 활동
7.10(월)	북극정책 강의 9~13회	폴라코드, 북극 해운, 북극 조선, 북극 과학, 한국 문화
7.11(화)	워크숍 I, II	북극권 학생 발표대회
7.12(수)	현장방문	부산항만공사 및 조선소 등
7.13(목)	현장방문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등 극지관련 기관
7.14(금)	문화 체험 I, II	국내 문화유적지 탐방
7.15(토)	해산	

- 국내외 북극관련 석학초청특강(전 과정 영어강의로 진행) 총 13회
- 국내 주요 관련 기관 방문
- 문화 체험



□ 지원자 자격요건

- 전공범위 : 전공은 불문이나, 해양법 등 국제법, 해양정책, 해양학, 해양산업, 국제관계학, 국제정치학 등 극지 관련 전공자 우선 선발
- 학력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 시점 기준으로 휴학 및 졸업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도 지원 가능
- 기 타 : 영어강의 수강 및 토론이 가능할 것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5.22(월)~6.15(목)
 - 공고장소 :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극지정보포털서비스(www.koreapolarportal.or.kr)
 - 접수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 동삼동 소재) 정책동향연구본부(접수담당자 : 안수경 051-797-4753 또는 신수환 051-797-4764)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직접 제출 시에는 접수 전에 상기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요망
 -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처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안수경<051-797-4753> 또는 신수환 연구원<051-797-4764>)

※ 신청자 제출서류

- ①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1부(붙임 양식1)
- ② 서약서 1부(붙임 양식 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3)
- ④ 재학증명서 1부(휴학 또는 졸업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 ⑤ 해당 대학(원)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자유양식)
- ⑥ 북극에 대한 관심을 정리한 국문 에세이 1부(자유양식)
(A4 1매,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 ⑦ 기타 증빙 서류 각 1부(해당사항 있을시 제출)

- 최종선발자 통보 : 추후 개별 통지
 - *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참가자 소집 : 7.5(수) 예정



3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 참가자 비용 지원

☐ 국내 교통비, 숙박비 등 참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 및 강의자료 지원

- 단, 공식일정 이외의 사적 용도의 시내교통비,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보험료, 의료비, 기타 사적 용도의 제반비용은 개인이 부담

- 국외재학생의 경우, 국제항공료는 제공하지 않음

☐ 프로그램 참가자 혜택

☐ 북극대학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의 수료증 수여

☐ 북극 관련 국내외 국제회의 초청 및 필요시 참가 지원

☐ 극지 관련 국내외 정보 제공

☐ 유의사항

☐ 선발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기간 중 또는 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프로그램 참가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수환(051-797-4764) 또는 김종덕(051-797-4751)로 문의하시기 바람